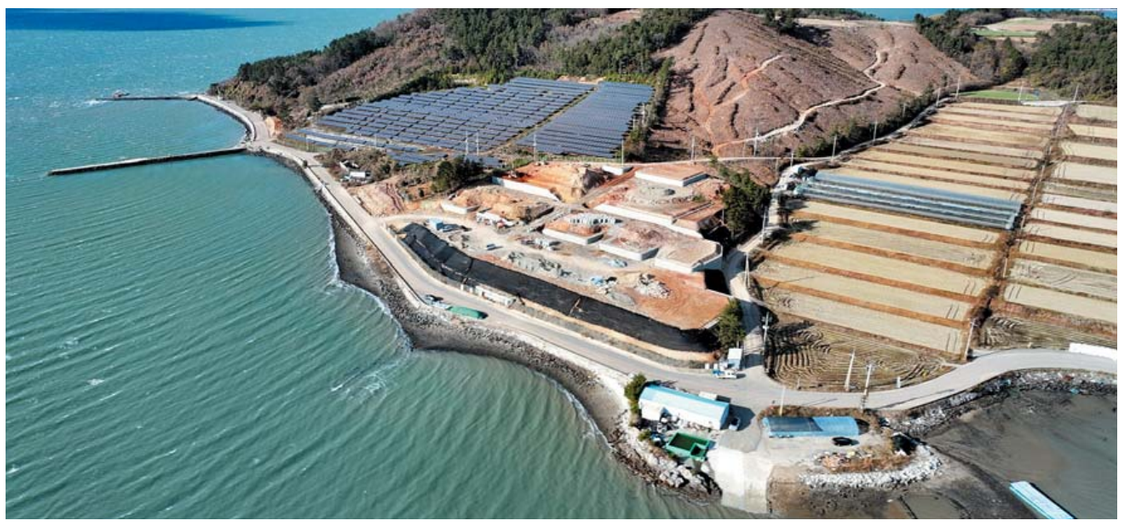
‘귀농·귀촌 장려’ 강진, 신규마을 조성 본격화

남호·임천지구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지역 활성화 기대
강진원 군수 “도시민 유치·인구소멸 위기 극복 핵심 사업”


강진군 신규마을을 조성사업이 한창인 대구면 남호지구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신규마을을 조성사업은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 공동체 중심의 생활 인프라를 제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장려해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강진군 내 주요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대구면 남호지구에는 전원주택 16세대와 마을회관 1세대를 포함한 신규마을을 조성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약 1만5천541㎡ 규모로 진행되며,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독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바다가 보이는 입지와 쾌적한 자연환경 덕분에 모든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입주 예정자 중 14세대가 광주 등 도시민으로 구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를 지원해 도시민과 지역 주민 간 조화를 이루고 농촌 생활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진읍 임천지구에서도 총 150동의 전원주택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신규마을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약 19만㎡(5만7천800평) 규모의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관계인구센터, 공동체험형 텃밭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며, 강진군의 경쟁력 있는 농촌 마을 조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신규마을 조성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사업”이라며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크리스마스, 공룡과 함께”

해남공룡박물관 ‘공룡과 산타’ 주제 특별체험 마련

해남공룡박물관이 크리스마스 주간 ‘공룡과 산타’를 주제로 특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해남공룡박물관 곳곳에 포토존과 성탄절 행사를 마련해 방문객 맞이에 나섰다.

해남공룡박물관은 22일 “크리스마스 주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즐거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대형트리를 설치, 곳곳에 풍선 장식과 과자집, 선물꾸러미 등 조형물로 포토존을 조성했다.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기획전시실에서 ‘공룡과 산타’라는 주제로 산타 옷 입고 가족사진 촬영하기 행사가 열린다. 특히 박물관에 대형 트랜스포머 로봇이 찾아와 퍼포먼스와 포토타임을 가지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스마스와 매주 토·일요일에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은 북극곰 3형제 만들기와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체험이 더해져 총 12종의 만들기 체험이 운영된다.

또한 주말에는 거대공룡실에서 오감만족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오후 2시에 비눗방울 공연, 샌드아트 공연 등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운 겨울 해남공룡박물관에서 몸과 마음이 따뜻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들을 마련해 잊지 못할 해남공룡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 섬마을 교육 新가능성 제시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눈길’

올해 전남 70개 국공립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신안군 도초고등학교가 개교 47년 만에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해 섬 지역의 한계를 넘어 신안군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한 도초고등학교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학교들에 비해 접근성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중심의 다양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도서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내고장 바로알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에 힘썼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합격 소식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나주보건소, 道 정신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구축 등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호평’

나주시보건소는 22일 “지난 20일 전남도 주최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전남도 내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실적과 연간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는 자리다.

이번 평가에서 나주시보건소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한 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동·청소년부터 중장년층,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임산부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우울 예방 집단상담에는 총 43회에 걸쳐 246명이 참여했다.

취업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청년의 마음건강 이동상담 및 캠페인은 14회에 걸쳐 761명에게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 직장인 마음건강 프로그램 24회를 통해 350명이 참여하며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교육, 웃음 치료,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청·장년 고위험군 78명 발굴해 1대1 상담 및 지원을 제공, 위험도가 6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산부의 우울감은 프로그램 전후 비교 시 20%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 방향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나주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최원석 “임성지구 개발 전담팀 신설 촉구”
고경욱 “市 공유재산 등 관리 미흡” 지적

최원석

고경욱

목포시의회 394회 정례회 7차 본회의

목포시의회 최원석·고경욱 의원 등이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력 편성과 관광 사업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원석(더불어민주당·상동·삼향동·옥암동) 의원이 제39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16년간 지연됐던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전환점을 맞았다”며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은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임성역 인접성 ▲광역철도 연계 ▲무안국제공항 및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 등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담 지원팀 신설을 촉구했다.

고경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산·원산·용해동)은 제39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와 외달도 관광시설, 국제축구센터 운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그동안 지적한 10곳 중 8곳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부를 격려하는 한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방망이섬 무단점유와 옛 인도양 횟집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외달도 관광시설에 대해 “해수풀장의 이용객 수와 수익성이 급감해 폐쇄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목포시가 적자 운영 지속 여부, 개선 방안 마련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제축구센터와 관련 “시 감사에서 18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데 대한 추가 서면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 대해 “특혜성 예산”이라며 환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청소년자람터 ‘오늘’ 청소년사업 운영보고대회 ‘성료’

성과 공유…프로그램 개발·협력 강화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최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4년 영광군 청소년사업 운영보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여성가족부, 영광군, 영광군의회,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주최하고,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법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영광미래교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6개의 주요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영광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민들의 시름과 쌀 소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수상자들에게 꽃다발 대신 쌀을 준비해 ‘쌀다발’로 축하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운 기관들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아를 찾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경선 청소년자람터 ‘오늘’ 이사장은 “이번 보고회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밝은 내일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해군 3함대 천사봉사단 동참 눈길

영암군은 “최근 영암지역자활센터와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가 지역사회 14개 단체 200여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600박스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 연대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해군 제3함대사령부 3수리창 무기체계공장 천사봉사단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장은 “겨울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지역사회 14개 단체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의 장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삼호읍봉사회는 김장김치와 떡국을 저소득 가구 20곳, 삼호노인복지회관 등에 나눴다. /영암=나동호 기자